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2차 세션, 하나님의 계시, 평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세를 아는 것, 시편 119편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젠슨, 신의 계시, 평가, 신을 아는 것과 우리의 자세, 시편 119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탐구할 때에도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당신의 성경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확고히 두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InterVarsity의 기독교 신학 윤곽 시리즈의 일부인 *The Revelation of God*에 대한 그의 좋은 책에 대한 Peter Jensen의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계몽주의와 특히 볼테르와 흄에서 구체화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한 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정통주의 성경 관점의 세 가지 주요 강조점, 즉 계시를 역사, 신의 자기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강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에 있는 신의 말씀과 어느 정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평가하고 몇 가지 강점을 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모아 놓으신 것과 그의 말씀을 찢어 놓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계시적 주장에 대한 적대감이 어떤 식으로든 권위적이거나 독특하다고 제시될 때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종종 관찰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 계시에 대한 주장은 예외적으로 상대주의적인 환경에 대처해야 하며, 뉴 에이지, 활기찬 컬트, 새로운 물리학, 바티칸 이후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수세기 동안 살아 있는 종교와 강력한 종교 간의 가장 강력한 대면적 만남을 수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한, 서구에서 선호되는 지위를 잃은 기독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예를 들어 모르몬교와 개신교 사이의 선택은 진실보다는 스타일과 훨씬 더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선교사들의 관심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가 신앙 주장을 더 수용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방식으로 제기된 그러한 주장을 덜 수용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기독교 계시와 다른 신앙의 기반이 되는 계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과 권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쟁에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문학 비평과 해석학 이론이 포함됩니다. 현재 사상의 다원주의는 성경 사용에 상응하는 다원주의를 기대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출처에 대한 오래된 논쟁 중 일부는 우회되었습니다. 텍스트의 문학적 본질, 또는 현재 그대로의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답변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 대한 이해에는 진전이 있었고, 이는 보수적인 학자들과 보다 진보적인 학자들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상 학파에서 성경 해석을 특징짓는 무익한 접근 방식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는 약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료에 대한 계시적 지위에 대한 주장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와 같은 위대한 교리를 포함한 교회의 체계적 신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성경 해석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세계에서 국가 또는 고백 교회의 시대는 지나가는 듯하며, 그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조적 이해가 전수되는 메커니즘도 지나가는 듯합니다. 일부에게는 가톨릭교와 정통교가 선택지이지만, 그들 역시 더 이상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도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남성과 여성을 자신에게 부르는 말씀을 존중하는 계시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신교 복음주의는 하나님께서 특히 영감받은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주장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계몽주의 이전의 정통주의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믿음의 흐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주의자들은 모든 문화권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이 성경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는 이 주장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죄인들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시는 구원하는 계시가 아니라는 칼빈의 견해를 계속 공유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주장은 문화와 많은 교회의 사고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그 추종자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연합하고 그 메시지가 교회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는 데 동의합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초기 범주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즉시 계시로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더 두드러진 성경적 범주와 이 지식이 생겨나는 복음이라는 더 중요한 성경적 범주를 따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본질과 역할을 재평가하고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피터 젠슨의 좋은 책, *The Revelation of God*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성경의 교리에 대한 성경적 소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크리스토퍼 모건이 쓴 책인 기독교 신학,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드리며, 저도 그 책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6절. 그런 지식은 나에게 너무 놀랍고, 높고,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17절.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총합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함은 어떻게든 그분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깨어날 때, 잠들 때,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는 무덤, Sheol 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그는 우리가 서양에서 살 때나 동양에서 살 때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거기에 있습니다. 신은 우리를 정교하게 창조하시며 모든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날들을 계획하십니다. 16절. 아직 아무도 없을 때.

흥미롭게도, 다윗의 신의 무한함에 대한 지식은 다윗을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겸손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신의 생각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신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다윗과 다른 누구도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적들이 그를 반대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자신을 아는, 항상 현존하시는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해하는 데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한 강조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의 진정한 지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 몸을 굽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그의 백성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의 부담을 당연하게 느끼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깊이를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언약의 주님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신과 신학에서 우리의 입장을 아는 것.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접근하여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까요? 심지어 신에 대한 가르침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이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단어가 암시하듯이, 일반 계시는 신이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살았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물론 그는 초기 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그의 개인적 고백과 그의 권위 있는 저서인 신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그의 가르침 때문에 그를 종교 개혁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백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절부절못합니다.

인용문 닫기. 매우 흔한 인용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시편 119편은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사실, 저는 더 나은 가이드를 알지 못하므로, 제가 이 위대한 시편을 읽는 동안 참아주십시오. 흠 없는 길을 걷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119편, 주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들이여. 그분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한 그릇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당신은 당신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 내 길이 당신의 법규를 지키는 데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모든 계명에 내 눈을 고정하리이다.

내가 당신의 의로운 규칙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저는 ESV를 제 주요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신학 서적에서 인용할 때 Christian Standard Bible도 인용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지킴으로써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당신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 두었사오니,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당신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술로 당신의 입의 모든 규칙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증거의 길에서 나는 모든 재물을 즐기는 것만큼 즐거워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묵상하고 당신의 길에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율례를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을 후하게 대우하시어 내가 살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당신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당신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은 항상 당신의 규칙을 갈구하여 소진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명에서 떠나 방황하는 뻔뻔스럽고 저주받은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나에게서 비웃음과 멸시를 돌이켜 주소서. 내가 당신의 증거를 지켰음이니이다. 비록 왕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모의하여 앉아 있더라도

당신 의 종은 당신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당신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로다.

그들은 나의 상담자입니다. 내 영혼은 먼지에 달라붙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길을 전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계명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길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당신의 법을 은혜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충실함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규칙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증거에 매달립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나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33절 : 주여, 주의 율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당신의 법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지키도록 나에게 이해력을 주십시오 . 당신의 계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당신의 증거로 기울이시고 이기적인 이익으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보지 않도록 내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에서 내게 생명을 주소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경외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증해 주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난을 돌이켜 주소서. 당신의 규칙은 선합니다.

보소서, 나는 당신의 계명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 주여 ,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를 비웃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소망이 주의 규례에 있음이로다. 나는 주의 법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넓은 곳을 걸으리니 주의 계명을 찾았음이로다.

나는 또한 왕들 앞에서 당신의 증거들을 말할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사랑함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법규들을 목상하리이다

당신의 종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소망을 두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약속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나의 위로요 나의 고난입니다. 횡포한 자들이 나를 철저히 비웃어 도 나는 당신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옛적부터 주의 법도를 생각할 때,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당신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뜨거운 분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당신의 율례는 내가 머무는 집에서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밤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의 법을 지킵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내렸고,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57절, 주님은 나의 몫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길을 생각할 때, 나는 내 발을 주의 증거로 돌립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서두르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줄이 나를 얽어맬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자정에 일어나 당신의 의로운 규칙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동반자입니다. 주님, 땅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당신의 종을 당신의 말씀대로 잘  
대하셨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믿으니 좋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횡포한 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칠하지만 나는 온 마음으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찐 것이 아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당신 입의 법은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나에게 낫습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들고 고정시켰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배우도록 나에게 이해력을  
주십시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바랐음으로다. 주여, 당신의 규례가 의로우심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신실함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위로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당신의 율법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횡포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해쳤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계명을 목상하리이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에게로 돌아와 당신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이 당신의 율례에 흠이 없게 하소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81.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사모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당신의 약속을 사모하나이다.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나는 연기 속의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언제까지 참으리이까? 언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나이까?  
 궤변하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함정을 파 두었나이다 .

그들은 당신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당신의 모든 계명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들은 거의 저를 땅에서 끝장냈지만, 저는 당신의 계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당신 입의 증거를 지키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님, 당신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땅을 세우셨고, 그것은 굳게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임명으로 그들은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고난  
 속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의 법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노리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완전함에 한계가 있음을 보았지만, 당신의 계명은 매우  
 넓습니다. 오, 내가 당신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것은 종일 내  
 묵상입니다. 당신의 계명은 나를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가 내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보다 더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악한 길에서 내 발을 막습니다.

나는 당신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당신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의 계명을 통해 나는 이해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의로운 규칙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확인하였나이다. 나는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자발적인 찬양 제물을 받아 주시고, 당신의 규칙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항상 내 생명을 내 손에 쥐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위해 올가미를 놓았으나 나는 당신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증거들은 영원히 내 기업이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임이로다 내가 당신의 법도를 영원히 끝까지 행하고자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나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주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안전하게 있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항상 존중하게 하소서.

당신은 당신의 법도에서 빛나가는 모든 자를 멸시하시나니, 그들의 교활함은 헛됨이요, 땅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는 당신을 두려워하여 떨며, 당신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나를 압제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선의의 보증을 주십시오. 오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눈은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운 약속의 성취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따라 당신의 종을 대하고 당신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이해력을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당신의 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계명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129. 당신의 증거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그것들을 간직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펼쳐지면 빛이 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에 대한 이해를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길이 그러하듯이 나에게 돌이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약속대로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은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물의 시냇물을 흘립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도는 옳습니다. 당신은 의로움과 모든 신실함으로 당신의 증거를 정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킵니다. 당신의 약속은 잘 시험되었고 당신의 종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작고 멸시받지만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는 영원히 의로우시고 당신의 율법은 참되옵니다. 환난과 괴로움이 나를 찾아냈지만 당신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당신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증거들을 지키게 하소서. 새벽 전에 일어나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밤의 경계 전에 내 눈이 깨어 있어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당신의 정의에 따라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악한 의도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가까이 계시고 당신의 모든 계명은 참됩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을 오래 전부터 알았사오니 주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셨음이니이다 153.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소송을 변호하시고 나를 구속하소서. 당신의 약속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리 있나니, 이는 그들이 당신의 법도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 당신의 자비는 크십니다. 당신의 규칙에 따라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많으나 나는 당신의 증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혐오스럽게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의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따라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당신 말씀의 총합은 진실이며, 당신의 모든 의로운 규칙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군주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의 말씀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큰 약탈을 얻은 사람처럼 당신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일곱 번씩 당신의 의로운 규칙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큰 평화가 있습니다 .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당신의 계명을 지킵니다.

내 영혼은 당신의 증거들을 지킵니다. 나는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과 증거들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길이 당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게 하소서, 내가 오게 하소서, 하, 내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이해력을 주소서. 내 간청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입술이 찬양을 쏟아낼 것이니, 당신이 당신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셨음어요. 내 혀가 당신의 말씀을 노래할 것이니, 당신의 모든 계명이 옳음이로다.

당신의 손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계명을 택하였음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구원을 사모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규칙이 나를 도우게 하소서.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종을 찾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습니다. 볼테르와 데이비드 흠을 인용할 수 있다면, 성경의 가장 긴 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도움이 되는 안내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성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묵상한 것입니다. 8절로 구성된 두문자어이며,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연속 문자로 시작합니다.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즉 A에서 Z까지입니다. 시편은 전반적으로 성경을 지칭하는 8가지 주요 용어를 사용하며, 각각은 성경의 본질, 권위, 효과, 지시 또는 법, 말씀, 법령, 계명, 규정, 약속, 명령, 판단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속성을 부여합니다. 의롭다, 7절, 선하다, 39절, 공정하다, 75, 참되다, 86, 순수하다, 140, 137절과 138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과 같은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합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이 내리시는 법령은 의롭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속성도 부여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이며, 89절, 신뢰할 수 있고, 91절, 경이롭고, 129절, 신뢰할 수 있고, 1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고, 38절, 우리를 정화하고, 9~11절, 우리를 강화하고, 28절, 위로하고, 52절, 생명을 주고, 93절, 소망, 47절, 분별력, 66절, 지혜, 98~100절, 이해력, 104절, 인도함, 106절.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안에 많은 건강한 반응을 자극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그 자체에 대한 태도, 갈망, 140, 131절, 기쁨, 16, 24절, 사랑, 47, 97절, 두려움, 120, 161절을 낳습니다. 또한 우리의 명상, 15, 48절; 순종, 4, 5절; 기쁨, 1, 2절; 기쁨, 14, 162절; 소망, 43, 74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62절을 낳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움직임이며,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겸손한 청취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12절. 우리는 부지런한 탐구자로서 신학을 공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그의 명령을 추구합니다, 2절과 10절. 우리는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충고를 경청하는 충실한 종으로서 공부합니다, 17절, 22절, 23절.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절실히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방인으로서 반대에 직면한 시험된 여행자로서 신학을 공부합니다(19-24절). 우리는 기쁜 예배자로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내 입술이 당신을 위해 찬양을 쏟습니다. 당신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혀가 당신의 약속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모든 계명은 의롭습니다(171, 172절). 시편 119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학을 온전한 사람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 우리의 길,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을 통합하도록 강요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에 대한 사랑으로 신학을 공부합니다(41~48절, 97절). 우리는 거룩함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1~8절). 우리는 기도로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18절은 내 눈을 열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해력을 주소서, 169. 우리는 묵상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그의 길을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묵상하고 당신의 길을 생각할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시련 속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인용문은 우리에게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루터의 인용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참되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위대하고,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모든 지혜를 초월한 지혜.

이것은 루터의 기본 신학 서문에서 발췌한 것이고, 마틴 루터의 기본 신학 저술에서 발췌한 그의 서문입니다. 훌륭한 판본은 티모시 F. 로우의 것으로, 루터의 독일어 저술 비텐베르크 판에 대한 서문으로, 이 훌륭한 책인 마틴 루터의 기본 신학 저술입니다. 루터의 책에는 주석 연구, 신학 연구, 윤리 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책이 있지만, 티모시 로우의 책은 최고의 것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두껍지만, 접근하기 쉽고, 이 훌륭한 책을 통해 루터에 대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시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지만, 그는 시련이 없다면 신학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신을 신학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는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교사 또는 사회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22~24절, 41~46절, 99~100절. 우리는 부지런히 신학을 연구하며,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깊이 생각합니다(94~95절). 우리는 기쁨으로 신학을 연구합니다.

당신의 울레는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54절). 당신의 교훈은 내 기쁨입니다(77절).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120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신이나 그의 말씀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슬퍼합니다. 136. 사람들이 당신의 지시와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은 눈물의 흐름을

흘립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그 일에 부족함을 인정하며, 신의 도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신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33절). 제가 34절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계명의 길에 머물도록 도와 주십시오 (35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가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는 것을 좋아하시며, 그가 그의 영속적인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굳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89절.

우리는 공동체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서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쉬기 전에, 루터의 또 다른 인용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인용문, 글을 쓰고 가르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에 대해 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진정한 신학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루터의 비텐베르크 저서 서문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 이야기를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젠슨, 신의 계시, 평가, 신을 아는 것과 우리의 자세, 시편 119입니다.